# 동국무역 채무 재조정안 부결

## 제일은행 풋백옵션 불투명 … 출자전환 7968억원도 문제

동국무역 채무 재조정안이 부결됐다.

동국무역 채권단에 따르면, 일부 채권기관이 출자전환금액 규모와 대주주의 감자비율, 제일은행 풋백옵션(사후손실보전) 관련조항 등에 이의를 제기해 채무 재조정안이 부결됐다.

채권단은 5월 금융권 채무 1조5000억원 가운데 7968억원에 대해 대규모 출자전환하고 200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채무 재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은행들이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조항 때문에 향후 채무재조정이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조항은 워크아웃기업의 채권처리 때 예금보험공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있어 행여 예보가 반대하면 모든 계획이 무산될 위험이 있어 제일은행으로부터 채권단 합의안을 그대로 실행한다는 확약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주주 감자 비율이 소액주주와 같은 6.25대 1에 불과한 것은 적절치 못하며 완전감자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일부 무담보 채권기관들은 출자전환 금액 7968억원이 너무 많아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은 6월17일부터 채권단협의회를 다시 소집해 확약서를 포함해 채무조정금액, 감자비율 등에 대해 논의하고 모든 채권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17>*